

# “나도 투자해야 하나”…비트코인·금값 천장 뚫렸다

### 국내 금가격 한 돈에 43만원·비트코인 개당 9935만원 동반 상승 투자 대기 자본인 요구불예금·투자자예탁금 2개월째 지속 증가

금과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상승가를 기록하면서 지역민들의 투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역민들은 끝을 모르고 오르는 물가로 가계살림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금과 비트코인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 보고, 투자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양새다.

10일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금 가격은 지난 9일 기준 순금 1돈(3.75g) 당 43만 3000원으로 본격적인 상승세가 시작된 지난 2월 29일(1돈·37만 5000원) 대비 15.5% 올랐다.

이는 최근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하고, 지난 2022년 발발해 지속되고 있는 러-우 전쟁 등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지정학적 불안 및 울 하반기 중 금리 인하 기대감이 급격한 금값 상승의 요인이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 국채와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데,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연준·FED)가 하반기 중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하락하는 채권 금리에 따른 국제 이자보다 금 투자를 선호하게 돼 덩달아 금값도 상승세를 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되면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비트코인 역시 재물살을 탔다.

10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종가 기준 비트코인은 개당 9950만원으로 전일 종가(9935만원) 보다 0.15% 상승했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11일 처음으로 개당 1억원을 돌파한 뒤 소폭 오르내리며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ETF 승인에 따른 자금 순유입과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비트코인이 8만달러(약 1억 8000만원) 선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4일과 5일 비트코인 현물 ETF에 각각 2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순유입되는 등 비트코인 가격 상승 호재가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금과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더불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대기 자본’으로 불리는 요구불예금과 투자자예탁금 역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요구불예금은 647조 8882억원으로 전월 동기(614조 2656억원)에 견줘 33조 6226억원(5.47%) 증가했고, 두달 전보다는 57조원 이상 늘어났다.

요구불예금은 입금과 인출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투자 대기 자본’으로도 불린다. 정기예금보다 비교적 금리가 낮지만 수시로 자금 운용이 가능하

다는 점에서 돈을 임시로 보관하는 용도로 투자자들이 자주 이용한다.

요구불예금은 지난해 7월께 시중은행들이 정기예금 수신클리를 앞다퉈 올려 580조원 선까지 하락했다. 이후 비슷한 선에서 오르내리다가 지난 2월 600조원 선을 돌파했고, 2개월째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비트코인이나 금 등 대체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산에 대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요구불예금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이 급등한 시점과 비트코인, 금 가격의 상승 시점이 어느정도 비슷하다”며 “경기침체로 팍팍한 살림에 적절한 투자처로 코인 또는 금을 찾는 투자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반도체 회복에...한은 “총선 직전 경제심리 32개월 만에 최고”

### 117.29 연중 최고치 기록 경상지수 10개월 연속 흑자

총선 직전 우리 국민의 경제 심리가 32개월 만에 가장 긍정적인 수준으로 측정됐다는 한국은행 통계 자료가 나왔다.

농산물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생활물가가 부담이 해 소되지 않고 있지만,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고 수출이 증가한 점이 경제 심리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한은에 따르면, 뉴스심리지수(NSI)는 지난 8일 기준 115.6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 21일(115.9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말 96.21에 그치며 100선을 밑돌았던 이 지수는 올해 들어 추세적으로 상승해 이달 3일

117.29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은이 지난 2022년 1월 개발해 매주 화요일 일일 경제 통계로 공표해온 뉴스심리지수는 경제 분야 언론 기사에 나타난 경제 심리를 지수화한 것이다. 기사에서 표본 문장을 추출한 뒤 각 문장에 있는 긍정, 부정, 중립의 감성을 기계학습으로 분류하고, 긍정과 부정 문장 수의 차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만든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경제 심리가 과거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뉴스심리지수는 주요 경제지표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지수 상승에 대해 “반도체 업황이 눈에 띄게 개선되면서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덕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반도체 수출물량지수는 2012년 6월

이후 11년 8개월 만에, 반도체 수출금액지수는 2017년 12월 이후 6년 2개월 만에 각각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달 경상수지는 68억6000만달러 흑자로,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다만, 뉴스심리지수가 일반 국민의 체감 경기와는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로 두 달째 3%대를 기록한 가운데 고질적인 내수 부진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반도체 활황에 따른 일종의 착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IT(정보기술) 부문을 제외한 경제성장률은 1.6% 정도”라고 언급한 바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호남통계청·광주연구원, 통계데이터 활용 협약

지역 특화 통계 개발 등 호남지방통계청과 광주연구원은 지난 9일 광주시 광산구 광주연구원에서 통계데이터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런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통계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책연구 활성화 ▲광주지역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특화통계 개발·개선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최치국 광주연구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

로 지역특화통계 개발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통계를 활용한 지역 특성화 연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빈현준 호남지방통계청장은 “광주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광주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민생통계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통계청이 보유한 데이터와 광주연구원의 다양한 연구자료를 연계해 지역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BTS·뉴진스의 힘...하이브, 엔터사 첫 ‘대기업’ 된다

### 자산 5조 돌파...방시혁 총수되나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뉴진스 등이 속한 하이브가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10일 하이브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하이브의 자산은 지난해 연말 기준 5조3457억원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했다.

특히 자산 규모가 5조원을 넘게 되면서 가요계 첫 대기업 지정이 유력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일반 계열사의 자산총액과 금융 계열사의 자본총액을 더한 자산인 ‘공정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하이브의 자산은 지난 2021년 4조7289억원,

2022년 4조8704억원 등으로 5조원 아래를 유지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벗어난 바 있다.

하이브가 올해 새로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시 의무와 사익 편취 금지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또 자본 31.57%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자 설립자인 방시혁 의장은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05년 2월 빅히트엔터테인먼트로 설립된 하이브는 소속 그룹 방탄소년단을 월드스타로 띄우며 중소 기획사에서 업계 주요 플레이어로 체급을 끌어올렸다.

하이브는 쏘스뮤직(2019년)과 플레디스(2020년) 등을 잇따라 인수해 몸집을 키웠고, 2020년 10월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도 성공했다. 하이브의 시가 총액은 9조원을 넘겨 유가증권시장 전체에서 45위, 엔터테인먼트 업계 1위다.

하이브는 기세를 몰아 2021년에는 글로벌 팝스타 저스틴 비버와 아리아나 그란데 등이 속한 이타카 홀딩스를 전격 인수해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하이브는 최고 IP(지식재산권)인 방탄소년단 멤버 전원이 입대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세븐틴·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엔하이픈 등 후배 그룹들이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뉴진스·르세라핌 등 이른바 ‘4세대 걸그룹’이 성공을 거두면서 지난해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 처음으로 연결 기준 매출 2조를 돌파했다.

하이브는 올해에도 보이그룹 투어스(TWS)와 걸그룹 아일릿을 잇따라 데뷔와 동시에 성공시키며 ‘떡거리 다변화’에 힘을 쏟는 중이다.

/연합뉴스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